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 치열... 디스플레이업계 '함박웃음'

단말 제조사, 초슬림 신제품 붐물 LGD 등 소형 OLED 출하량 급증 디스플레이업계, 실적개선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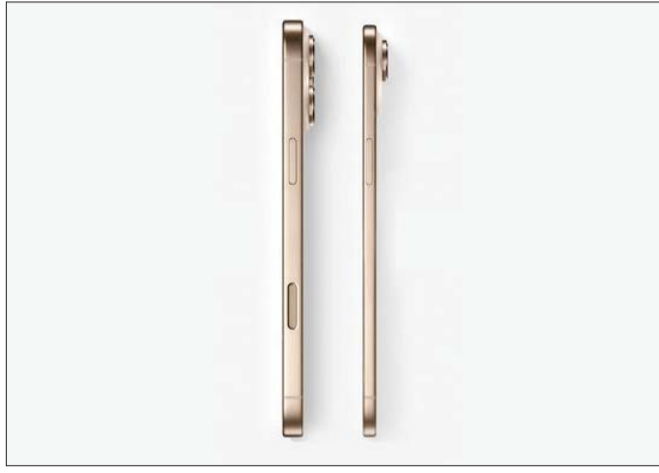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들의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역대 갤럭시 S시리즈 중 가장 얇다고 알려진 '갤럭시 S25 엣지'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공개행사를 열어 갤럭시 S25 엣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언팩을 통해 구체적인 스펙·가격을 공개하고 5월부터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S25 엣지의 본체 두께는 약 5.84mm,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두께는 8.3mm 수준이다. 갤럭시 S25 기본형인 7.2mm, 울트라 8.2mm와 비교하면 대폭 얇아진 수준이다. 무게도 162g으로 갤럭시 S25 기본형과 같지만 S25 플러스 보다는 28g 더 가벼운 것으로 알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2025에 전시된 '갤럭시 S25 엣지'. /뉴시스



아이폰17 에어의 예상 렌더링과 아이폰16 프로 맥스의 두께 비교. /맥루머스 X 캡처

려졌다.

애플은 올해 가장 얇은 두께를 갖춘 '아이폰 17 에어'를 공개할 전망이다.

이날 IT 틱스터(정보유출자) 아이스 유니버스의 SNS(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아이폰17 에어'의 기기 본체 두께는 5.5mm, 카메라 모듈 두께는 4mm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은 이를 위해 철화했던 '충전단자 제거' 계획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유선 충전 단자를 검토했지만 유럽연합(EU)의 C타입 단자(U SB-C) 의무화 규제에 해당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EU가 완전 무선 제품을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향후 애플이 충전단자 제거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제조사들도 초슬림 스마트폰을 내놓았거나 공개를 준비중이다. 앞서 오포는 지난달 말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고 폴더블폰 신제품 '파인드 N5'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펼쳤을 때 두께 4.21mm, 접으면 8.93mm로 전작보다 두께를 26%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글로벌 단말 제조사들의 초슬림 스마트폰 확대 기조에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유리서치의 '1Q25 소형 OLED 디스플레이 마켓트랙'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출하량

이 1년 새 2억대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소형 OLED 출하량은 7억7300만대에서 2024년 9억 8000만대까지 급증했다. 2025년에는 1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2023년 5200만대였던 출하량이 2024년 6800만대까지 증가했다. 소형 OLED는 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이폰 프리미엄 모델 등에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도 초슬림 스마트폰 OLED를 공개하고 시장 확보에 나선다. 회사는 올해 MWC에서 같은 전력으로 1.5배 밝은 화면을 구현하고 기존 OLED보다 20%가량 얇은 차세대 스마트폰 OLED를 공개했다. 해당 제품 초고휘도 OLED는 최대 화면 밝기가 5000니트(nit)에 달한다. 편광판이 제거돼 패널의 두께도 얇아졌다. OCF가 적용된 패널은 편광판이 있는 기존 OLED 패널과 비교하면 약 20% 얇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OCI홀딩스, 美 태양광 셀 생산공장 세운다

3840억 투자... 2026년 상업 생산 '태양광 밸류체인 단계적으로 강화'

OCI홀딩스는 20일 미국 태양광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MSE)의 부지에 독자적으로 태양광 셀 생산 공장을 세워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총 2억 6500만 달러(한화 약 3840억원)를 투자해 오는 2026년 상반기 1GW(기가와트)의 태양광 셀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기가와트)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기가와트)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TerraSus(구 OCI M)의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의 셀로 이어지는

비중국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Clean Supply Chain)을 구축하게 된다.

OCI TerraSus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의 친환경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RE100 요건을 충족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준수하고 있어 글로벌 고객들에게 미국 수출에 용이한 제품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셀 제조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1W(와트)당 4센트의 첨단세액공제(AMPC)를 받게 되고 고객의 경우 해당 셀과 같이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발전 사업)는 추가적인 10%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성이 향상된다.

OCI홀딩스는 지난 2014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업을 시작한 이후 10여년간 대규모의 다양한 태양광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이번 태양광 셀 생산 공장 설립은 기존 부지와 설비를 활용한 비용 절감과 함께 사전에 준비된 각종 인허가 보유로 상업 생산까지 타사 대비 1년 이상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태양광 셀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클린 서플라이 체인의 미국산 셀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이번 최소 비용과 최단 기간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운 기자 sy2665@



'2025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2025 SCSE)'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현대로템,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력 뽐내

대만 SCSE 참가... HTWO 등 소개 현대로템이 대만에서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력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20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SCSE)'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SCSE는 대만의 대표 스마트 시티 박람회다.

현대로템은 이번 박람회에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에이치투)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수소 종합 솔루션 'HTWO Grid'(에이치투 그리드) 등 수소 사업을 소개한다.

전시 부스는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현한 '디오라마'를 전시해 미래 수소 사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수소전기트램 모형 등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전시를 통해 대만의 수소 전략과 가오슝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반한 수소 사회 종합 솔루션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양승운 기자

현대차·기아, 보안 솔루션 사업 고도화

슈프리마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기아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보안 시스템 전문 업체 슈프리마와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슈프리마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협력해 팩토리얼 성수에서 로봇 친화 빌딩 검증을 수행한 국내 출입 통제 분야 1위 업체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로봇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로보틱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양측은 AI와 로보틱스를 융합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 로보틱스 기

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이 첫 시작으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달이 딜리버리 등을 활용해 물리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할 방침이다. 물리 보안은 범죄 등 고의적 위협으로부터 인명, 시설, 정보 등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취약성을 통제하는 활동이다.

현대차·기아는 다양한 로보틱스 기술을 서비스에 융합하는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피스, 종합병원, 호텔 등 로봇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한결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로봇과 사람이 건물 내 인프라의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오른쪽)와 슈프리마 김한철 대표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약을 극복하고 편리한 이동과 새로운 공간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업계 표준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히 AI 기술이 결합된 '로보틱스 토탈 서비스'가 기존 정적 물리보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운 기자 ysw@

EU "구글·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유럽연합(EU)은 구글·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하며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규로, 지난해 3월 발효됐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요건은 타사 스마트워치에 iOS

알림을 표시하고, 타사 헤드폰에서도 자동 오디오 전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 타사 제품에 에어드롭 대안책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알파벳에 대한 DMA 위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구글 검색엔진은 경쟁사 서비스보다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먼저 드러낸다"며 "이는 '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